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심의총평

##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시·시조A)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시·시조A)
- 회의일자 : 2023년 5월 10일(수)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회의실

본 기금은 문학적 수월성이 뛰어난 미발표 작품을 지원하여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작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평가하는 데 집중하였다.

심의는 우선 기발표 작품이나 작가 이름 노출 등 지원 자격에 위배되는 작품들을 결격 처리한 후,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의위원들은 각자 작품을 일일이 검토하고 작품별 심사평과 등급을 온라인상에 기록하여 개별 심의를 완료하였다. 그 후 대면 심의에서는 개별 심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한 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였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작품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고, 심의 위원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시조 부문은 장르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이미지와 해석, 신선한 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아서 고무적이었다. 시조라고 해서 자연이나 풍경, 인생 등을 고요하고 서정적으로 그려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이거나 역사적인 소재에도 관심을 돌리는 작품들이 있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시 부분은 전체적으로 산문적인 시들이 많았다. 시가 길어지는 것은 현대시의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산문적인 형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 해볼 일이다. 몇몇의 작품들이 사적인 기록이나 메모에 가까워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 보였다.

산문적인 시의 흐름 중에서도 인간 존재에 대한 신중한 성찰을 보여주거나 내면의 갈등을 산문적 양식으로 잘 풀어낸 작품들이 있어서 우리 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향상으로는 리얼리즘적인 시들이 현저하게 퇴색하여 현실과 직접적으로 대면 하는 시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내면적인 의식이나 심리도 시의 중요한 소재이지만, 삶의 현실 또한 소중한 시의 영역이다. 시 창작이 미적인 형상화나 개인의 내면 표현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삶의 현실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긴장과 균형을 놓치지 않는 탄탄하고 굽직한 시가 많이 쓰여지기를 기대한다.

시·시조A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시·시조B)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시·시조B)
- 회의일자 : 2023년 5월 10일(수)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회의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작품 중 시, 시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시 235건, 시조 27건을 대상으로 공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 개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시 형식과 내용의 참신함, 형상화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원 작품 모두 일정 정도 시적 성취에 이른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시 정신의 건재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작품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말이 장식처럼 쓰여 시문장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번역 투에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 내용에 낯익은 모티프, 이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동시에 고백 서사 진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묘사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여 시의 응축과 함축이 주는 여운을 맛보기 힘들었습니다. 시조의 경우 지원 작품이 적어 아쉬웠습니다. 시조 현대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출된 일곱 편을 대상으로 시인의 면모를 다 헤아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임을 잘 알기에 무엇보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날 시 흐름이 시의 해체와 혼용에 다다랐음을 염두에 두고 시 본연의 모습을 견지하는 작품에 더 눈길을 두었습니다. 이점 살펴 주리라 믿습니다. 비록 적은 편수지만 편편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시적 사유에, 시 제목부터 소홀히 여기지 않고 꼼꼼히 챙긴 정성에, 독자를 생각하며 몇 번이고 다듬었을 시어, 시문장 표현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한번은 마주쳤을 낯익고 식상한 시 형식과 내용에 대해 자기 시 세계를 다시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호소에서 손길을 거두었습니다.

심의 위원들도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한술밥을 먹기에 심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지원자와 함께 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작품을 읽으며 시가 그저 문자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변주되는 순간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피상적인 시 쓰기와 마주할 때 발길 멈추기도 했습니다. 선정된 작품과 기쁨을 함께 합니다. 더불어 선정되지 못한 작품과 섭섭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누구의 시 위에도 아래에도 없으니 관찮지 않은가요. 감히 적어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시조B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 아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소설)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소설)
- 회의일자 : 2023년 5월 11일(목)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023년 아코 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소설 분야에는 220편의 중단편과 20편의 장편이 신청되었다. 이 중 결격사유가 없는 중단편 196편과 장편 15편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심의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 심의(사전전수검토단계)에서는 세 명의 심의위원들이 각자 제출된 작품들을 모두 읽고 검토하였다. 이후 5월 11일의 대면 심의를 통해 선정 대상을 확정하였다. 공정성을 위해 심의는 심의 위원들이 각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대면심의 전에는 심의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서로 알 수 없었다.

심의는 제시된 한 가지 기준, 곧 문학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졌다. 심의 위원들 간에 예비 심의 채점 결과에 대한 큰 이견은 없었다. 특히 모두가 수작으로 꼽는 작품들은 정확히 일치했다. 다만 선정권에 걸쳐 있는 동점작들이 많아 논의가 필요했다. 동점작들 중 한 심의위원에게라도 최고점을 받은 작품과 누구에게도 최하점을 받지 않은 작품들을 추려 다시 검토했다. 그 결과 70편의 중단편과 4편의 장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의 대상 작품들은 다채로운 주제와 소재를 담은 다양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구조 형식 역시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상을 모티프로 쓰인 작품이나 유령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많았다. SF와 역사 소설의 비중도 상당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버거워졌다는 감각이 사회적 참사와 세계적 재난 상황, 또는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시공간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나 짐작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200여 편의 중단편과 15편의 장편을 읽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심의 대상 작품들의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면모 덕에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특히 심의 위원 모두에게 최고점을 받았던 10여 편의 작품은 올해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로 꼽아도 좋을 수작들이었다. 여타 선정작들 역시 인간의 삶과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밀도 높은 문장, 치밀한 구성, 참신한 형식 등을 보여 주었다.

대부분의 작품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었으므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작품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다. 문장의 밀도 면에서 산만한 작품들이 종종 눈에 띄었는데, 불안한 삶이 불안한 문장을 낳은 것은 아닌가 한다. 그렇다 해도 각각의 문장들이 필요한 이유, 각 문장의 구성, 문장들 사이의 관계나 배치 등이 납득 가능해야 한다. 문장이 산만한 작품들 대부분은 이야기의 구성도 산만했다는 점을 첨언한다. 많은 작품들이 참신한 상상을 담고 있었지만, 왜 그 이야기가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특히 SF나 역사소설 중에 눈을 끄는 특이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러나 그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읽혀야 할 이유가 있어야 참신한 상상력도 빛날 수 있다. 왜 그 이야기가 그러한 형식으로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 사업의 목표는 “문학 작가의 우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학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돋보이는 작품을 발굴하는 것보다도 작품 활동을 지속할 의지를 돋우는 데 더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응모작 대부분이 ‘이 정도면 발표지원 사업에 선정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만한 수준이었다. 예산과 선정비율의 한계 탓에 더 넓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 특히 장편의 경우 신청건수도 선정된 작품의 수도 아쉽다. 장편은 오랜 시간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써야 하는 만큼 더 쉽게 신청하고 더 크게 지원받게 하면 좋겠다. 문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작품 하나를 찾는 일보다도 최고가 될 가능성을 지닌 작가들의 창작의지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일 터이다.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써 나갈 힘을 주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탈락한 작가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소설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 아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아동·청소년문학)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아동·청소년문학)
- 회의일자 : 2023년 5월 12일(금)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023년 아코 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은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22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기존 한 권의 작품을 지원하기보다 적은 분량의 미발표 원고를 온라인에서 공개 발표하는 것이다. 올해 아동·청소년 부문 심의 대상은 결격을 제외하고 동시(1인 7편) 117명, 중단편 동화/청소년소설(1인 2편) 80명, 장편 동화/청소년소설(1인 1편) 36명으로 이 중 동시 39명, 중단편 26명, 장편 13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심의방식은 제출 작품의 무기명 심의(블라인드)로 진행되었고, 응모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심의 기준은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지,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지,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며 수준이 높은지의 여부였다.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한 번 더 적용하여 심사숙고 하였으며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준 심의위원을 의견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듭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시의 경우는 1인이 7편을 제출하므로 각 편이 고른 수준을 유지하는지 중요시하였고 혹 현재 활동중인 기성 동시인의 특정 작품이 바로 연상되는 경우 감점을 하였다. 기성 동시단의 상투적인 소재, 상투적인 표현을 답습하는 일부 동시들에 아쉬움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반짝이는 시편을 찾는 즐거움이 있었다. 현재 동시단은 어린이들의 실제 대화, 구어체를 날것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시의 언어 폭을 넓히는지, 반대로 시다운 언어를 잃고 있는지에 대한 양가적 딜레마가 있는데 심사에서도 그 문제가 토론에 올랐다. 어린이에 대한 틀에 박힌 인식을 벗어나고, 시각만이 아닌 오감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동시, 함축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혼동하지 않는 동시, 다양한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시의 음악성을 한껏 끌어올리는 동시를 기다리며 심사에서도 그러한 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중단편 동화의 경우에는 응모자가 장편과 다른 단편 동화(청소년소설)의 내용적, 미학적 차이를 고려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장편의 도입부인가 싶게 제대로 완결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오랜 고질적 문제인 단순한 소재주의, 교훈주의의 도덕 교과서 예화 같은 것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어린이책의 유행 경향인 공포동화도 적지 않게 응모되었는데 스토리와 인물의 단단함보다 자극적인 이미지 위주인 경우가 있어 일반 대중문학이 아닌 아동문학으로서의 고민이 아쉬웠다. 장편의 경우는 장르문학의 문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많아졌으나 환상성이 장르적 상투에 머물러 작가의 몰개성을 초래하곤 하였다. 단편이 될까 말까한 이야기감을 장편으로 늘려 쓴 경우도 적지 않은데 최근 아동문학계 전반의 이야기성의 빈곤함과도 연결되는 점이다. 역사동화도 항상 일정한 비율로 응모되지만 스토리 설정과 인물이 틀에 박힐 때가 많은데 그래도 이번 응모에서는 인물이 인상적인 역사 동화를 볼 수 있어 가산점을 얻기도 했다.

최근 이야기를 짓거나 시를 쓰는 시가 상용화되면서 근대 이후 자명하게 여겨져 온 작가의 존재를 근본부터 생각해봐야하는 대전환의 시대가 되었다. 상투적인 소재, 주제, 교훈을 적당히 버무린 이야기와 동시는 시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독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결과가 없다면 아동문학의 현재 와 미래는 불분명하다. 대전환의 시대에 창작 활동을 할 작가들의 어깨가 무겁다.

아동·청소년분과 심의위원 일동

##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수필·평론·희곡)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발표지원(수필·평론·희곡)
- 회의일자 : 2023년 5월 11일(목)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2023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문학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여 작품의 질적 제고와 함께 발표 기회를 확대하여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발표지원 분야 중 수필·평론·희곡 장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수필의 경우 심의 대상 113건 중 41건을 선정하였으며, 예비로 6건을 확정하였다. 평론의 경우 9건의 심의 대상 중 3건을 선정하였으며, 예비로 2건을 확정하였다. 마지막 희곡의 경우 39건의 심의 대상 중 14건을 선정하였으며, 예비로 2건을 확정하였다.

사전전수검토제도를 통해 각각의 심의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작품들을 모두 읽고 사전 채점을 완료하였으며, 대면 심의를 통해 현장에서 선정과 예비를 확정하였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진행하기 전 심의위원회에서 동시대의 문학 동향을 가로질러 새로운 문학 창작을 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을 선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문학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상상력을 추구하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모색하는 장점에 주목하고자 하였으며, 비슷한 수준의 작품이라면 지역적 안배까지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심의를 진행하며 다음 심의에서는 각 등급 별로 다시 작품 등급을 세분화하여 작품들의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당부하며 본 심의 총평을 마친다.

수필·평론·희곡 분과 심의위원 일동